

‘전북 성인 여성 교육과 함께한 20년’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개교 20주년 기념식·학습발표회 개최

성인여성들의 꿈을 실현하는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장 이영희)는 지난 16일 학교 강당에서 ‘개교 20주년 기념식 및 학습발표회’를 개최했다.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교육의 시기를 놓친 전라북도 내 만19세 이상 성인여성들에게 평생교육 차원에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열린생각·새로운 꿈·변화하는 여성’이라는 교훈아래 1998년 3월 9일 개교하였으며, 지금까지 1,320명(중 689명, 고 631명)을 배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 성인 여성교육과 함께한 재학생 및 동문, 자원봉사교사와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하여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20년 발자취를 돌아보고, 학생들이 한 해 동안 맺은 결실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식전 행사인 흥겨운 사물놀이, 라인댄스 학생동아리 공연을 시작으로 1부 개교 기념식에서는 김승일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와 송성환 전라북도의회 의장, 정병익 전라북도 부교육감이 참석하여 개교 20주년을 축하하며 늦은 나이에 배움의 뜻을 펼치고 있는 재학생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냈다.

이어서 축하공연으로 학생들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담은 ‘행복을 주는 사람’, ‘You are my sunshine’ 합창과 자원봉사교사의 ‘한량부’ 공연으로 개교 20주년을 지켰다.

2부 학습발표회는 학생들이 13개 정규교과목 수업뿐만 아니라, 방과 후 동아리 활동을 통해 틈틈이 갈고닦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하는 자리로 다채로운 공연과 수준 높은 작품이 전시되었다.

특히, 현대와 고전을 넘나들며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코믹 퓨전 연극인 ‘최진사대 셋째 딸 사위 결정전’과 ‘흑부리 영감과 아지매’, ‘꼭두각시와 라인댄스’와 ‘도레미송’ 등 다양한 춤과 노래 공연으로 학생들의 재능과 끼를 보여줄 수 있는 열정 가득한 무대를 보여줬다.

또한 교과목 실습 작품으로 미술(캘리그래피 양초, 꽃 도자기 등), 과학(석고방향제, 비누), 기술가정(프랑스자수 손수건, 목도리)과 동아리 활동으로 만들어낸 보테니컬아트반 식물그림 예코백, 한식조리사반 수제양갱 및 쿠키, 수채화반 그림 등 다양한 작품 전시를 통해 학생들은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이영희 교장은 “배움의 뜻이 있는 성인여성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20년 역사를 주춧돌 삼아 희망찬 미래를 향해 비상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내년 2월 8일까지 2019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모차르트를 연주할 때마다 행복을 느끼며, 그것을 즐깁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 앨범 발매

피아니스트 조성진(24)이 지난 16일 앨범 ‘모차르트: 피아노 피아노 협주곡 20번, 소나타 3번 & 12번’을 발매했다.

조성진의 도이치 그라모폰 세 번째 스튜디오 레코딩이다. 조성진이 열일곱 살이던 2011년 참가해 3위에 입상한 차이콥스키 콩쿠르 결승 연주곡 중 하나인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 라단조 K 466’을 수록했다.

조성진은 “모차르트를 연주할 때마다 저는 늘 행복을 느끼며, 항상 그것을 즐깁니다. 어떤 작곡가의 레퍼토리를 연주하기 위해 때로는 고통스럽게 몸부림쳐야 할 때도 있지만, 모차르트를 연주할 때만큼은 그렇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그의 곡이 연주하기 쉬워서가 아니라 그 음악 자체가 제게 큰 기쁨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고 부연했다.

이번 앨범에서는 세계적인 지휘자인 아니네제 세경, 그가 지휘하는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가 함께했다.

조성진은 “아니네제 세경의 해석 속에 수많은 드라마와 이야기, 캐릭터가 녹아 있어 밋밋함과는 거리가 멀며, 다채로운 색채감이 가득합니다. 그와 함께 연주하면서 정말 편안했어요”라고 밝혔다.

이번 앨범에는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3번’과 ‘12번’도 수록했다. 디지털 앨범과 국내에서 발매 한 디럭스 앨범에는 ‘모차르트 관타지 3번’이 추가로 담겼다.

도이치 그라모폰의 사장인 클레멘스 트라우트만은 조성진의 이번 앨범에 대해 “조성진이 연주하는 모차르트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칠



Seonh-Jin Cho
1) This photo must be credited with the photographer's copyright notice. 2) The name of Deutsche Grammophon must be mentioned within the text accompanying this photo.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지난 16일 앨범 ‘모차르트: 피아노 피아노 협주곡 20번, 소나타 3번 & 12번’을 발매했다.

뿐만 아니라 그 시기의 모차르트의 감성을 반영해 주듯 슬픈 감정을 함께 담아내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음반으로 탄생했다”라고 말했다.

조성진은 2015년 한국인 최초로 쇼팽 콩쿠르 우승 후 이듬해 1월 도이치 그라모폰과 전속 계약했다. 이후 2016년 지아나드레아 노세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 & 4개의 발라드’를 발매했다. 2017년에는 드뷔시의 ‘영상 1집’,

‘영상 2집’, ‘어린이 차지’ 등이 담긴 앨범 ‘드뷔시’를 발매했다.

한편, 조성진은 16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지휘자 안토니오 파파노,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을 협연했다. 12월7일에는 정명훈, 서울시향과 함께 도이치그라모폰 120주년을 기념하는 갈라 콘서트에 참여한다.

/뉴시스

가을 밤, 책으로 채우는 ‘열린 시민독서토론’

전주시립도서관, ‘통찰력 강의’ 저자김경집 교수 초청강연

깊어가는 가을 밤, 전주 시민들의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독서토론회가 열렸다. 전주시립도서관과 전주독서동아리 연합회는 지난 16일 동문예술거리 ‘1% 호스텔’에서 독서동아리 회원과 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민독서토론’을 개최했다. 열린 시민독서토론은 시민들이 전주 시 생활공간 곳곳에서 독서와 토론을 즐기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세상 어디로든 통하는 문, 내 손의 책’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4월부터 2달에 1번씩 열리고 있다.



이날 열린 시민독서토론에 참여한 황미숙 씨는 “한 권의 책을 읽고 생각을 함께 나누며, 저자에게 궁금한 점을 바로 질의할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전주시 곳곳에서 시민들이 책과 토론을 즐기고 독서습관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전주시의 독서문화 발전을 이루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열린 시민독서토론에서는 경보비 국악인의 판소리가 함께 어우러져 깊어가는 가을밤을 재웠다.

/송효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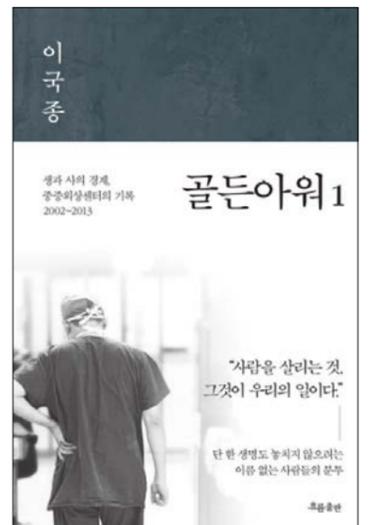
베스트셀러 차트, 김난도·이국종·피터슨 3파전

김난도 교수(소비자학)가 이끄는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트렌드 코리아 2019’가 3주 연속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를 지켰다. 7~13일 차트에서 2위 조던 B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과 3위 이국종의 ‘골든아워’ 1권을 따돌렸다.

야쿠마루 가쿠의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은 지난주보다 2계단 하락해 4위에 자리했다. 김수현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하태완의 ‘모든 순간이 너였다’ 등 최상위권 인기 도서 순위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이석원의 ‘우리가 보낸 가장 긴 밤’은 출간과 함께 5위에 꽃혔다. 여성 독자 비율이 78.9%로 남성(21.1%)보다 높다. 30대 여성 독자의 비중이 44.7%로 가장 크다. 인터파크도서 8~14일 차트에서는 ‘골든아워’ 1권과 2권이 나란히 1, 2위에 랭크됐다. 3위는 ‘12가지 인생의 법칙’, 4위는 ‘트렌드 코리아’다. ‘돌이킬 수 없는 약속’ ‘모든 순간이 너였다’ 등은 베스트셀러 10위권을 지켰다.

/뉴시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